

라는 제목을 붙이려고까지 했다. 다행히 나는 자연이란, 내가 나고 자란 풍토에서조차 그 자체로 얼마나 낮은 것이었는지를 떠올렸고, 뿐만 아니라 한낱 여행자로서 그 생장을 지켜보지도 못했던 나라에서의 자연이란 얼마나 풍요하고, 다채롭고, 정겨우며, 웅장하고, 신비로운 것인지, 또 그 자연을 잘 알고 잘 그려내기에는 내가 가진 통찰이나, 미감이나, 표현력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떠올렸다. 나는 그때서야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했다. 그래서 이 빈약한 습작에다가 대중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나의

『자연연구』⁽²⁾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후속편으로 삼기로 했다. 이 제목이 대중에게 나의 능력 부족을 상기시켜주어, 늘 그 마음에 관용을 되새겨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.

2) 『자연연구』